

## 광주 청년 정치인들 “5·18은 5월단체 것 아니다”



1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6회 제6차 본회의에서 광주시의원 5명이 함께 ‘응답하라! 1980’이라는 주제로 릴레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심창욱·이명노·채은지·강수훈·정다는 시의원.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1980년 이후 태어난 2030 광주시의원 5명 릴레이 5분 발언  
“5·18은 광주의 혼이 대한민국 바꾼 자랑스런 민주화의 역사”  
5월단체 눈치보기 급급했던 관행 탈피...지역 정치권에 새 반향

2030세대 젊은 정치인들이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5월 관련 단체와 기관, 광주시의 부실한 5·18 행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쏟아냈다. <관련기사 6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다는(북구2)·심창욱(북구5)·채은지(비례)·강수훈(서구1)·이명노(서구3) 의원 등 광주시의원 5명은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오월 광주의 민낯을 조목 조목 따지며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원 5명이 공동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릴레이 5분 발언을 한 것도 1991년 광주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었고,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이 성역으로만 여겨왔던 5월 단체와 관련 기관의 문제점을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신랄하게 지적한 것도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릴레이 발언에 참여한 시의원들은 모두 1980년 5월 항쟁 이후 태어난 젊은 청년 정치인들로, 지금까지 각종 선거 등을 고려해 5월 관련 단체의 눈치 보기만 급급했던 기성 지역 정치권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번 릴레이 5분 발언을 주도한 정다는 의원은 “저희 5명에게 5·18은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기에

오늘날 허물어져가는 오월정신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면서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니다”며 “광주의 혼과 열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40년 넘도록 발표명령자, 민간인 집단학살 등에 대해 규명을 제대로 못한 국가차원의 진상조사와 ‘국비 전달책’과 5월 단체 민원기관으로 전락한 광주시, 선거 때만 찾아오는 정치인들도 에둘러 비판했다.

심창욱 의원은 ‘5·18 규모역’의 허술한 관리 실태와 사업 연장을 위한 사업 및 단체를 위한 행사 강행에 치중해온 5·18 기념재단을 지적하고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활동과 운영을 당부했다.

채은지 의원은 기록물 수집과 보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시스템이 부재한 5·18 기록관을 질타하며, 기록관의 위상 정립을 위한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최근 공법단체인 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공법단체 이외의 단체가 5·18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강수훈 의원은 5·18 행사위원회 명칭 논란을 둘러싼 5월 관련 단체의 분열과 평가르기,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도 여전히 식상하고 참신성 없는 5·18 기념행사의 쇠신하고 변화를 강조했다.

이명노 의원은 “5·18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5·18 이름만 빌린 교육관일 뿐이다”며 “강의실, 세미나실, 생활관을 담은 대관용 시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5·18 교육관의 운영 실태를 직격했다.

5명의 의원들은 끝으로 “우리 모두는 19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며 “5·18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라고 물으며 릴레이 발언을 마쳤다.

이번 릴레이 발언은 정다는 의원의 제안에 나머지 4명의 의원이 동참하면서 이뤄졌고, 지난 3월

부터 서로 역할 분담을 통해 광주시와 5월 관련 기관, 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제보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정무장 의원은 폐회사를 통해 “5·18은 대한민국 역사이자 인류의 자산으로 오월단체 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다. 5월은 명예가 아니라 명예고, 채권도 이권도 아닌 채무며, 희생이자 봉사”라며 “오월단체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하나된 진상규명과 헌법 전문 수복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번 릴레이 5분 발언을 계기로 5·19 기념사업 등에 대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정부 “세계최초 AI법 추진 노력...AI 인증체계 하반기 시범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중구 제너시스랩 본사에서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AI 윤리·신뢰성 강화를 위한 현장감담회를 열어, 국회에서 심의 중인 인공지능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신뢰성 확보 조치 등 사업자 책무를

규정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이 법이 인공지능 진흥을 위해 서만 제정되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법안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방적인 산업 육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인공지능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 신뢰성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최근 문제로 제기되는 AI의 한계를 극복할 연구개발 사업에 정부가 집중할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 54조원

기재부, 연간 적자 전망치 육박

올해 들어 석 달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세금 수입 부진 등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규모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5월 재정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45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25조원 감소한 수준이다.

1분기 국세수입이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로 소득세가 7조1000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도 6조 8000억원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세외수입도 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6000억원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50조9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어 전체 감소폭을 완충했다.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7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분기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3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흔들리는 대동정신 - 해결책은 양보와 화합 ▶6면

복스 - '문자, 미를 탐하다' '취어진 시대' ▶14·15면

타이거즈 '10번 타자들'이 함께 편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OPE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함도 레티놀이 분기당  
필자 주름 80% 개선  
IOPE LAB

## 슈퍼레티놀

###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대상) 2019.08.16~10.17 8주간(4주)피부임상연구결과  
고려사항: 080-023-5454 | www.iope.com